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김진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수)

자녀출산으로 부부 중심에서 부모자녀관계 중심으로 바뀌는 부모전환기에, 여성은 다역화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육아 및 가사노동 부담의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며 어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시기는 생애주기상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취업모인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가사노동 및 육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역할 과부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취업모 역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녀출생과 양육이 이뤄지는 부모전환기에 부모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은 시점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도에 조사된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조사 중 취업모 585명, 비취업모 11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를 결혼만족도로 하며, 독립변수를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변인, 아동변인, 직장변인으로 범주화한 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부인), 남편의 양육협조, 결혼만족도(남편), 양육실제(부인)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남편의 양육협조가 많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양육실체가 긍정적일수록 부인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긍정적인 양육스타일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이것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비취업모에게는 양육실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실제적인 양육스킬을 가르치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부인), 남편의 양육협조, 도구적 가치(부인), 결혼만족도(남편), 최종학력(부인)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남편의 양육협조가 많을수록, 부인이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취업 자체보다는 부인의 교육수준과 이에 따른 직업지위 및 직업 환경이 부인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인이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를 지닐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는데,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 부여가 취업모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고충을 극복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체적으로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관련변인을 포함하여 결혼만족도의 변량을 33.75% 설명하고, 비취업모의 경우 모든 변인이 결혼만족도를 33.62% 설명하고 있어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관련이 변인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